

화면과 음향, 물동이 결합되면서 저도 모르게 3차원세계에 빠져드는 야릇한 패감에 여기에서 아이들은 시간의 흐름을 잇는다.

조국을 지켜갈 불같은 맹세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용감성을 키워주는 영화 《해방》, 아슬아슬한 모험과 긴장한 순간의 린속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우승자》, 희한하게 생긴 남극의 물고기들과 유라기시대의 거대한 동물들이 출현하는 《환상의 남극바다》와 《1억 5 000만년전》...

역시 동심은 어쩔수 없다. 이 관람실에서 저 관람실로 린속 자리를 옮겨 가며 소개관에 적혀있는 모든 영화들을 다 보고서야 속이 후련해하는 아이들이다.

